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참회의 공덕

## 교황 “폭력과 극단주의 멈춰야”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폭력과 극단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황은 전날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통해 이라크에 도착한 뒤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의 환영을 받았다. 이어 바흐람 살레 이라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종교인들을 만났다.

교황은 이라크 도착 후 가진 연설에서 “폭력과 극단주의, 파벌과 편협한 행위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라크는 전쟁의 참담한 여파와 테러리즘의 고통, 종파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이것들은 종종 다른 인종, 종교집단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 교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사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 140만 명 가량이던 이라크 내 기독교 인구는 현재 25만 명 정도로 급감했다.

많은 기독교인이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축출로 이어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후 폭력 사태를 피해 해외로 이주했다. 2014년에는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기승을 부려 수많은 기독교인이 거처를 잃었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들이 훼손됐다.

교황은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이라크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그는 2019년 중반에도 이라크 방문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작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교황의 해외 일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보안 우려 때문에 위험하다는 시선도 많았지만 교황은 이라크를 방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僣)은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며 회(悔)는 생각을 돌이켜(恨) 고친다(改)는 의미이다. 사람이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 보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곳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일위판단은 일단 거리를 두고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서게 된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의 잘·잘못을 알고 판단 할 수 있다면 그는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후회로 마음 아파할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를 증생은 욕심이 많고 뜻대로 안되면 성질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면 안으로 마음이 상하고 밖으로 남을 해치거나 사물을 부수어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또 다른 욕심을 부리므로 잘못된 거듭 죄를 저지르게 한다.

참회의 길은 밝고 곧고, 평탄하여 그 길로 거듭 가면 날로 새로운 업(業: 마음과 몸으로 짓는 행위)을 지어 좋은 결과가 때때로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참회는 참으로 좋은 생활요법이다. <화엄경>의 보현보살행원품에 참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내가 지나간 세상 끝없는 세월에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 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 나쁜 업에 형체가 있다면 가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몸과 말과 생각의 청정한 업으로 법계에 두루 한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며,



항상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머물겠다.”

허공계가 다하고 증생의 세계가 다하고 증생의 업이 다하고 증생의 번뇌가 다해야만 나의 참회가 다할 것이다. 그러나 허공계와 증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끝나지 않는다.

참회는 끝이 없다. 일체증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보살의 서원은 끝이 없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참회도 끝이 없어야 한다. 참회가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유족단경>의 참회품에서 혜능대사도 참회할 것을 강조하셨다.

“이제 너 회에게 무상참회(無相悔)를 주어 삼세(三世)의 죄와 허물을 없애고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 이와 같이 부르라.”

“제가 순간순간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미련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순간순간마다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

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순간순간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질투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무상참회이다.

참회란 무엇인가? 참(懺)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다. 회(悔)란 이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하여 그 죄를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범부들은 어리석어 지나간 허물을 뉘우칠 줄은 알면서도 앞으로 있을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른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허물이 연이어 생기게 되니, 이것을 어찌 참회라 할 것인가?

죄를 적게 지으려면 몸과 말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 욕심의 분노가 행할 수 없는 충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한번 옆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뺏은 말은 거두어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참회의 올바른 길이다.

교만과 질투는 허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혹이다. 교만과 질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무아(無我)를 말씀하심은 교만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나’라는 것이 없다면 무엇을 집착하여 ‘내 것’이라 하겠는가!

참회는 반야바라밀로 가는 길이며 성불로 가는 대로이다.

-법산스님-

#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